

마음 · 세상 · 자연

# 맑고 향기롭게

2013. 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매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11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먹는 일이 큰일

처음 마음으로 8 좌선과 생활상의 효용

샌디에고 압탈 14 잊지말자, 일본

차내음가득한시간 17 목은영당 추계 다례제

참교육 이야기 20 병영체험이 교육이라고... 정말?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4 아름다운 마무리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26 일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병원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2 음악과 함께 하는 가을

천진난만 36 동반자

향기나는 우체통 37

맑고향기롭게 활동소식 38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5



표지 사진 · 회원

11월의 숲은 성글다.  
물든 잎들이 지고  
가지와 줄기가 등성등성  
제 모습을 드러낸다.  
뜰에 찬 그늘이 내리는 이 무렵이  
겉으로는 좀 쓸쓸한 듯 하지만  
안으로는 중심이 잡히는  
아늑하고 따뜻한 계절이다.

-법정-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225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먹는 일이 큰일

글·법 정(法 頂)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새삼스럽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끓여 먹으러 주방에 들어가기가 이주어주 머리 무겁다. 버릇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요 며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남이 해준 밥을 얻어먹다보니, 마땅히 손수 해야 할 일인데도 남의 일처럼 머리 무거워진 것이다.

남이 해 놓은 밥을 먹을 때는 그저 고마울 뿐. 밥이 질거나 되거나 혹은 찬이 있거나 없거나, 어쩌다 돌이 한두 개 섞였다 할지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그게 조금도 문제될 수 없다. 남이 차려준 식탁을 대할 때의 그 고마움이란, 자취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사람이 먹는 음

식을 놓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결코 복 받을 일이 못 된다. 그런 사람은 남의 수고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절에서는 음식을 받을 때 다섯 가지를 생각한다. 이를 오관계(五觀偈)라고 하는데, 대충 그 뜻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德行)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道業)을 이루려고 이 공양을 받 습니다.

밖에서 돌아올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낮에 닿으려고 일찍부터 서두른

다. 그래야 먼지도 털어내고 군불도 지 피고 뜰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낙엽을 치울 수 있다. 간혹 차 시간이 맞지 않아 어두워서 빈 집을 돌아오면 썰렁해서 영 어설피다. 서둘러 돌아온 자신의 거처인데도 마음이 붙지 않는다.

이따금 느끼는 일인데, 부엌에 들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 갈 때가 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하지? 그러나 순간, 아니지,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다. 미리부터 걱정을 앞당길 건 없어. 수행자는 그날그날을 최대한으로 살면 그뿐이니까. 홀로 있기를 원했으니 또한 홀로 자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즐겁게 살 것. 이 세상이 즐겁지만은 않으니까 내 자신이라도 즐거움을 만들어가면서 유쾌하게 살 것.

며칠 동안 보다가 보니 배추와 무가 많이 자랐다. 아욱과 상추도 이제는 뜯어 먹을 만하게 컸다. 씨앗이 나올 만하면 썩들이 와서 해집는 바람에 속이 상했는데, 올 가을에 전에 없이 밤이면 산 토끼들이 내려와 배추와 무를 여남은

두령이나 뜯어먹었다. 채소를 가꾸는 짓은 사실 먹는 것보다 가꾸는 재미가 더 큰데, 크기도 전에 미리 뜯어먹으니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사람이 먹이를 가지고 짐승과 다를 수야 없지 않은가.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살 수밖에. 먹을 만큼 먹으면 자기들도 염치가 있겠지.

이곳 조계산으로 옮겨온 지 오늘로서 꼬박 7년이 된다. 어느덧 7년! 짧지 않은 이 기간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 심은 나무들은 몇 길이나 자라 이제 앞산 마루를 가릴 만큼 컸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렇다 하게 해놓은 일도 없이 시은(施恩)만 지면서 세월을 보냈는가 싶으니, 인간사가 새삼스레 덧없고 부끄러워질 뿐이다.

이 산으로 처음 옮겨올 때는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 기개와 꿈이 대단했었다. 그때의 상량문(上樑門)에는 이렇게 써놓았다.

왕사성에 죽림정사(竹林精舍)가 세

워진 이래 출가 수행자들은 적정처(寂靜處)에 집을 지어 도량을 삼았다. 이 암자는 주추가 금강보좌(金剛寶座, 석가모니가 성도한 자리)에 뿌리내리고 벽은 상락아정(常樂我淨)으로 둘러싸였으며 지붕은 무색계천(無色界天)으로 덮였다. 이런 집이므로 밤에 꿈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 없고,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가히 머무를 수 있다.

수십 년 전 비어 있는 자정암(慈靜庵) 터에 이제 새로 집을 지어 그 이름을 불일암(佛日庵)이라 고쳐 부른다.

이곳에 머무는 본분납자(本分衲子), 참으로 발심한 수행승)는 오늘같이 흐리고 막막한 세상에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라는 뜻에서다.

그 소임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는가. 성성적적(惺惺寂寂)한 정진으로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이어받고, 하늘 짜를 대장부의 기상으로써 불토(佛土)를 장엄(莊嚴)해야 할 것이다.

이 암자를 세우는 데에 뜻과 힘을 같이한 여러 이웃들이 이 인연으로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은, 그 무렵 어찌서 기를 써가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했던가 하는 일이다. 더구나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그때 집을 지으려는 생각이 일기 시작하자 이런 논리도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앞서 간 선인들이 지어 놓은 집에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냈는데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하나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몸담아 살다가 인연이 다해 이 집을 비우고 떠나면 또 아무나 인연 있는 수행자가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지었다고 해서 결코 내 소유물은 아니다. 앞서 간 선사들이 다 그랬듯이…….

보이지 않는 법계(法界)의 어떤 뜻이 내 생각의 심지에 닿아 그렇게 연소작용을 일으켰을 것 같다. 그러니 우연히 떠오른 한 생각이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

그때 스스로 선택한 결단에 조금도 후회는 없다. 그러나 지금 같으면 큰절 귀퉁이에 방이나 한 칸 얻어, 여럿 속에 섞이면서 일없이 지내는 쪽을 택했을지

도 모른다.

흔히 수행승들은 입버릇처럼 생사대사(生死大事)를 말하지만, 허구한 날 손수 끓여 먹어야 하는 처지에서는 생사대사보다도 식사대사(食事大事)쪽이 현실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하루 한 끼를 먹건 두 끼를 먹건, 먹는 일을 엄숙한 일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일과는 물을 것도 없이 구멍이 뚫리고 만다.

7년 세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타성의 늪에 갇힐 위험이 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익혔는가. 그저 부끄러울 뿐. 책상 앞에서 쓰는 안경의 도수가 조금 높아졌고, 쓰잘데기 없

는 글과 말로 인해 헛이름만 드러내어 세상 살기가 그 전보다 부자유해졌다. 애초 이 산중에 들어올 때의 그 팔팔하던 서슬과 기상은 모성적인 조계산 덕분인지 많이 누그러졌다.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 홀로 마실 때의 향기롭고 그윽한 차 맛을 알게 됐고, 이제는 내 분수를 가늠할 수가 있다.

또 이곳에 들어와 거뜨거뜨 다진 뜻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큰스님만은 절대로 안 되어야겠다는 결심이다.

지금 숲에는 가을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있다. 또 겨우살이 채비를 해야 하는가! 1982

-산방한담 중에서

## 공덕주 길상화보살기일, 11월 9일(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주상보시를 한 김 길상화보살님의 기제가 오는 11월 9일(음력 10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극락전에서 마련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실천하신 길상화보살님의 뜻을 기리며 함께 길상스런 도량으로 가꿔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좌선과 생활상의 효용

글• 덕 윤(德 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금전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진리의 성찰을 위한 삶이 자기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욕망에 따라서 사는 감각적 삶은 마치 불나방이 불을 탐하여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삶이며 이러한 삶은 끝없는 생사를 이룰 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무시이래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어두워 무명(無明)에 뒤덮인 채 끝없는 윤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틀린 삶의 질곡인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의 본성을 깨닫기 위한 발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차일피

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일 년이 후딱 지나가고 내년 내년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늙음이 찾아오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상(無常)의 진리(眞理)를 깨닫지 못하고 수행(修行)하지 않는다면 결국 업에 묶여 끝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계승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三界猶如 汲井輪(삼계유여 급정륜)이요,

삼계가 마치 물 걷는 두레박 같아서

百千萬劫 歷微塵(백천만겁 역미진)이라.

백천만겁을 미진수만큼 지내왔으니 此身不向 今身度(차신불향 금신도)하면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更待何生 度此身(갱대하생 도차신)닛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우리 스님네들이 새벽예불 종성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인 육계, 색계, 무색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하는 두레박과 같이 백천만겁을 지내오면서 미세한 먼지만큼이나 많은 생(生)을 받아 끝없이 윤회해 왔습니다.

그러니 금생(今生)에는 꼭 이 몸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고 수행(修行)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하면 참선을 많이 떠올립니다. 참선하면 좌복에 앉아 수행하는 좌선공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좌선을 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면 선원을 찾아 선지식을 친견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소 실천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하며 최고로 빠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움을 피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좌선의(坐禪儀) 즉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또 음식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먼저 좌선하는데 있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반가부좌나 결가부좌를 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가부좌를 취해도 무방합니다. 하는 방법은 왼쪽다리를 구부려 사타구니에 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왼쪽 허벅지 위로 놓으며 몸의 중심 즉 배꼽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둘째는 척량골 즉 등뼈를 곧추세워

야 합니다. 등뼈를 곧추세우려면 반가 부좌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뒤로 쪽 밀면서 허리를 쪽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허리가 쪽 퍼지게 됩니다. 등뼈를 따라 오장육부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야 오래앉아도 병이 나지 않습니다.

셋째는 수인(手印)입니다. 수인은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리고 계란을 하나 잡듯이 동그랗게 만들어 엄지와 같이 자기의 배꼽 쪽에다 살짝 붙여줍니다.

넷째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깨를 한번 들어서 놓아줍니다.

다섯째는 가슴을 약간 내밀며 턱을 당겨줍니다. 턱을 들고 있으면 정신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는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다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입 속에 맑은 침이 고입니다. 그것을 모았다가 삼켜줍니다.

일곱 번째는 눈을 반쯤 뜨는 것입니다. 반쯤 뜨는 이유는 눈을 크게 뜨면 빛이 많이 들어와 망상이 일어납니다.

눈을 감으면 혼침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옛 선사들은 눈을 감고 정진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흑산귀굴속에 갇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즉, 검은 산 속의 귀신굴속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 뒤에 몸을 좌우로 흔들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토한 뒤에 들이쉬면서 호흡조절을 한 다음 정신을 차려 자기가 참구하는 화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화두가 없으신 분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행에 중요한 것은 음식 조절입니다. 음식은 자기 위의 7할 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약간 부족한 듯이 먹어야 정신이 맑습니다.

또 자기에게 맞고 맞지 않는 음식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불식(不食)을 하는 것

이 좋습니다. 꼭 수행을 안 하더라도 오 후불식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마련하여 반듯한 자세로 음식을 조절해 가면서 수행해 나간다면 몸과 마음에 그리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經)에 말씀하시기를

“잠깐 동안만이라도 좌선하면 항하 시수의 보답을 쌓은 것보다 나오리라. 보답은 마침내 허물어져 티끌로 돌아가지만 한 생각 맑은 마음은 부처를 이룬다.”하셨습니다.

대개 마음이 있고 닦음이 있고 언음이 있는, 이른바 유위(有爲)의 공덕은 생명의 법이며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은 무위를 닦는 것이니 그 공덕이 온갖 한계를 넘어섭니다.

또 선은 인간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분도리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올바르게 차려서 참 자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요긴하고 급한 것은 없습니다. 부(富)도 안락(安樂)도 건강도, 정신을 차려 참 자기를 깨닫고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

성을 깨닫는 선의 수행은 이런 점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참 자기를 회복한 성인들이 말씀하시길

“설사 이 법문을 듣고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또 닦아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공덕은 온 세계에 가득한 복보다 낮고 세세생생(世世生生) 해탈의 문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불과 중생제도 하는 것에 수행의 궁극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선을 실천해가면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좌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활상의 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좌선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사무능률이 향상되며 사고가 없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두뇌가 맑아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맑아지고 안정되며 정신집중이 잘 되고 오래 독서해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추리력, 이해력이 증진되고 두뇌에 질서가 잡히며 핵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암기보다 이해가 잘 되며 학문에 취미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며 피로회복이 빠릅니다.

셋째, 기도를 병행하면 성격개조, 능력개발, 인간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시간이 단축되고 심신이 경쾌해집니다.

다음으로 얻게 되는 정신적인 효용에 대해서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살아온 인생을 깊이 반성하며 생활상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허를 메우며 궁극적인 의지치를 얻게 하고 근본적 안심처를 얻게 합니다.

둘째, 선은 생사 속에서 살되 생사에서 초월한 자기를 발견하게 하며, 거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셋째, 인간 존재의 불안과 허무를 자각함으로써 그 불안과 허무를 극복하

고 밖으로 구하고자 하는 전도된 타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선은 인간의 신성과 존엄성을 스스로 자각하게 합니다.

다섯째, 인간의 신성과 가치와 주체적인 권위를 확립하여 유물론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고 의존적, 대립적 관계에서 주체적인 조화의 세계를 정착시켜 줍니다.

선이란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요, '깨달음' 즉,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각성하는 수행(修行)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기 위한 수행참구법의 하나인 이 참선은 사실상 아무런 종교적 의례도 필요 없고 모든 형식과 온갖 법칙에서 벗어난 가장 자유자재하고 본래 있는 그대로의 무한 무변한 밝은 길입니다.

더 나아가 선은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복이나 빌고 죽어서 극락왕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밥 먹고 잠자고 움직이는 바로 이 물건을 규명하려

는 것이며, 나아가 이것을 규명하면 자연적으로 자신의 갈 길을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선이란 완전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동시에 인생의 대도, 즉 우주만유와 절대적인 진리를 증득하여 완전 무구한 최상의 인격을 구비한 일체무애인이 되는 것이 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참선이란 정신적으로 생활상으로 여러 가지 효능이 많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궁극에 말씀하신 범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의 이치를 깨닫고 기복과 중생심에서 벗어나, 선(禪)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불기 2557년 9월 초하루 법문  
(2013년 10월 5일)

### 연말 김장 자원봉사자 모집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에서 겨울 살림살이인 김장을 아래와 같이 담글 예정입니다. 길상사 김장은 겨울 동안 수많은 대중들을 위한 공양으로 맑고 향기롭게 김장은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공양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보시 공덕 지으시고 그 공덕으로 나날이 기쁜 날 되시길 바랍니다.

- 길상사 김장 담그는 날 : 11월 29일(금)~30일(토) / 공양간
- 맑고 향기롭게 김장 담그는 날 : 12월 4일(수)~5일(목) / 조리장
- 문의 : 길상사 중무소 02)3672-5945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 잊지 말자, 일본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일제 시에 우리나라 말을 강제로 빼앗기고 자랐던 나의 한 이웃아저씨는 2006년 어느 날 일본 서점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책의 제목이 《켄칸류(嫌韓流)》(혐한류-한국을 혐오한다는 뜻, 저자야마노야린(山野車輪)라는 책이다. 노골적인 증오심으로 일본사람들을 선동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이 책의 제목을 보며 이웃아저씨처럼 나도 섬뜩해졌다. 도대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먼저 궁금해졌지만 알 수 없다. 하지만 한문을 조금 읽을 줄 아는 나는 책 내용의 일부나마 알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작은 섬, 독도(일본은 '다케시마' 竹島라고 부른다)가 일본 영토라며 철저히 일본 독자들에게 가르치는 영악한 만화책이

었다. 그림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며 어른과 아이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만부가 팔렸다는 달콤한 선전문구도 덧 장의 표지에 따로 첨부되어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나라가 한국이다'와 '한국에 더 이상 사과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글귀를 보면서 나도 분노가 치밀었다. 2005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책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부모님은 나의 귀가 닳도록 '잊지 말자, 일본, 믿지 말자, 미국'을 생전에 날마다 가르쳐주시지 않았던가. 요즘 중국은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를 넘겨다보고,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며 시비를 걸어온다. 분하여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잘 오질 않는다. 나라를 빼앗긴 서러운 속에 자랐던 내 친정어머님의 역사교육이 그리워서다. 조선의 임금을 일본으로 잡아가 볼모를 만들고 이씨 왕족 후손의 씨까지 말려버리려던 간교한 일본 놈들의 나쁜 짓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날마다 들려주시던 생생한 그 옛날 굴욕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나는 꿈속을 헤맨다. 일본에게 당한 치욕적인 역사를 결코 후손인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자주 새겨주시던 어머니. 국어를 빼앗기고 일본사람 행세를 하며 자라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두 얼굴 일본인의 정체를 잘 깨닫게 해주던 한국역사의 살아 있는 증인들이었다. (중략)

일본 군사들의 성적 노예로 아리따운 한국 처녀들을 끌고가 물건처럼 위안부로 이용했던 죄도 반성 할 줄 모르는 뻔뻔한 일본정부. 최근야 미국의 국회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겨우 오리발

을 내밀던 사람들. 천황을 앞세워 양반인 척 의문을 떨고 있다.

2000년대부터 특하면 우리 섬을 넘어 다보는 독도이야기로 그동안 일본을 향해 이웃으로 쌓았던 나의 우정도 관대함도 다시 사라져버리고 있다. 잔혹한 그들의 무서운 군국주의가 언제 되살아날지 치가 떨린다. 일부의 사기꾼들이 만든 교과서로 엉터리 역사를 배운 일본 젊은이들은 자기의 국토를 찾겠다며 우리나라에 싸움질을 언제 걸어올지 모를 일이 아닌가.

지난날 한국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학교에서 우리 역사 과목 시간도 사라져버리더니, 무섭게 국력을 키우는 중국과 경제대국으로 콧대를 세우던 일본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 한국의 엘지와 삼성의 전자 기술이 소니를 따라잡았듯이,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고 치밀한 대응을 위해 현명한 두뇌를 모아 야 한다. 영어를 잘하는 해외교포와 학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적



극도와야 한다. 우리 영토를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증거가 되는 고대의 지도를 세계의 대학교에 보급해야 한다. 미국의 서점가 책꽂이에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서적들이 꽤 많이 있지만, 한국에 관한 책들은 겨우 몇 권만이 꽂혀있다.

요란스럽게 독도에 가서 노래 부르고 태극기를 꽂아서만 될 일이 아니다. 치밀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유엔에 국제법을 공부한 판사를 6명이나 배출시키며 준비했기에, 이젠 당당하게 유엔의 국제사법 재판소로 가자며 시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중국과 일본이 거짓으로 그들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실어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신용하 교수님 같은 분이 독도문제를 걱정하며 정부를 향해 외롭게 외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

타까웠는데, 미네소타에 사는 미국인이 인터넷 웹사이트(www.geocities.com/mlvomo)를 만들어 놓고 진실된 독도 역사를 세계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니 눈물 나도록 고맙다.

진도를 육지에 이었듯이 어서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우리가 주인임을 보여주고, 집짓고 농사도 하며, 한국인 가족이 자손대대로 살아야 한다. 사랑의 국제결혼은 나날이 늘고,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존경하고,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며 배우려는 긍정적 국제협력시대이다. 그런데도 가까운 이웃 일본은 아직도 낯장도 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는 하되, 우리 역사의 굴욕적인 사건들은 결코 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 목은영당 추계 다례제 (牧隱影堂 秋季 茶禮祭)

글 • 문정숙(차문화연구가)

해마다 10월10일에 행해지는 <목은영당 추계 다례제>에 헌다할 차와 다기를 정갈하게 포장하여 대바구니에 담으며 바라본 가을 하늘은 아기 눈처럼 맑고 푸르다.

평소 존경하는 먼 조상님을 뵈러가는 즐거움을 간직한 채 조계사 뒷길을 따라 걸다가 1919년 3·1 독립선언서를 극비리에 인쇄했던 보성사터를 지나면 목은 이색의 영정이 봉안되어있는 <목은영당>에 다다른다. 허목(許穆·1595-1682)의 「목은 화상기」에 의하면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의 초상화는 원래 관복차림과 평상복 차림의 두 종류가 있었다는데, 평상복본은 전하지 않고 오직 관복본만 여러 점이 전해진다. 목은의 초상화는 사모를 쓰고

홍색 단령을 입은 채 교의에 앉아있는 전형적인 문관 초상화로서 화면 우측에는 권근의 찬문이 적혀있으며, 가늘고 긴 사모의 각(角)과 섬세한 안면모사, 옷주름의 선염법과 담홍색의 화사한 색갈치리는 고려 말 복식연구 및 회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영당 입구는 제례복을 갖추 입은 목은의 후손들로 복적이고 영당 안에는 격식에 맞게 제수가 진설되어 있다. 정각 11시가 되자, 참사자 전부가 차례를 선 뒤 제주가 분향하고 술을 모사 위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모든 참사자가 두 번 절한다. 이어서 초헌이 끝난 다음 축관이 엄숙한 목청으로 축문을 읽고 나면

최미자님은 맑고 향기롭게 회원입니다. 2권의 수필집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월드코리아 신문에 'Essay Garden'칼럼 연재 및 샌디에고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서 '최미자의 문학정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방일영문화재단의 '2013년 하반기 저술 지원 대상자' 14명 중 한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작가의 수필집 '샌디에고 입탑' 중에서 발췌하여 연재합니다.

일동은 일어나 재배하고 아헌, 종헌 후에 차를 갠과 바꾸어 올린다. 목은이 차를 몹시 좋아하여 차가 지닌 본래의 맛을 '진(眞)'이라고 표현하였음을 마음에 새기며 정성스럽게 달인 다탕을 헌공 다완에 담아 받들어 올려 헌다한 후 4배한다.

참사자 일동이 두 번 절하여 사신(辭神)을 마치고 철상(撤床)한 후 참사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복한다.

### - 목은의 사유세계

고려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을 겪으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정중부 등에 의한 무신 정권이 탄생되면서 왕실의 권위는 실추되고 혼란은 증폭되었다. 이후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권문세족이라는 지배세력이 등장하였고 이를 비판하는 신진사류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문학과 유교적 소양을 갖춘 과거 출신 관료들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청렴결백한 성품을 지닌 문사들로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

었다. 성리학적 입장에서 실친 윤리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당시 타락한 불교계의 상황은 비판의 명분으로 대두되었고 정도전 등은 불교 말살론 까지 거론할 정도였다.

그러나 목은은 달랐다. 당시 불교의 병폐를 점진적으로 개혁하여 유교와 공존시키려했던 그의 사유체계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은 유불선의 사상적 조화는 목은이 소년기부터 사찰에서 글을 읽으며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고려 말 정치적인 시련을 원숙된 중화의식으로 극복해서 고려왕조를 수호하기 위해 충절을 다했으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지조를 지킨 인물이다.

목은은 기울어져 가는 고려의 국운을 기슴 아프게 바라보며 '백설이 자자진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였고 / 석양에 홀로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고 애끓는 탄식을 하였다.

### - 목은 시고(牧隱 詩藁)

목은의 친품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타고 났으며 성인의 학문에 대해 정미한 곳까지 철저히 연구했다. 그의 문장은 해박하면서도 간결하였고 전아(典雅)하여 후대의 학자들은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당대의 최고의 시인으로 본다.

목은 이색은 고려 말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참담한 비극을 겪는 사건뿐만 아니라 성리학에서 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사상 편력, 세시 풍속, 지아비와 부친으로서의 자애로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함, 가을바람에 낙엽 지는 소리와 차를 달이며, 수풀 사이로 지는 해와 바위 벼랑에서 떨어지는 물, 산사의 저녁 종소리 등 서정적이며 풍류적인 크고 작은 소재들을 모두 격조 높은 시로 응축시켜 무려 6,000여수에 이르는 다시문을 남겼다.

### 부벽루(浮碧樓)

목은 이색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에는 한 조각달이 걸려있고  
오래된 바위 위로 천년의 구름이 흐르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올 줄 모르고  
천손은 어느 곳에서 노니시는지  
바람부는 섬돌에 기대어 길게 읊노라니  
산은 푸르고 강물은 절로 흐르네

\* 천년을 변함없이 흐르는 구름 사이로 변성했던 옛 성터를 외롭게 비추어주는 조각달과 강력한 주체적 힘 즉 주몽으로 상징되는 천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찬란했던 민족문화의 무상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체할 수 없어 길게 휘파람을 불어보지만 저산과 강물은 시인의 마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마냥 푸르고 덧없이 흘러만 간다.

## 병영체험이 교육이라고... 정말?

글\*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놀이를 하고 있다. 아들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광~광광~”하고 쏘면 아버지는 아들의 총에 맞아 넘어져 죽는 시늉을 한다. 이런 모습은 우리 가정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버지를 총으로 쏘는 아들, 아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흉내를 내는 아버지…….

북유럽의 경우에는 평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아예 나라에서 장난감 무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에게 살상무기로 살인을 하는 훈련(?)을 하도록 허용하는 정부나 그런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들도 있다.

장난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

되어 있다. 시중에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휴먼 서바이벌, 가창력, 창의력, 재능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침투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나 CD 중에는 몸서리쳐지는 경쟁과 살상, 증오와 살인의 서바이벌을 주제로 한 영화들까지 앞다투어 등장하고 있다.

학교에 근무할 때 일이다. 수능이 끝난 고 3교실에서는 수업이 어렵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몇 번 보여줬던 일이 있다. 어느 날 수업에 들어갔더니 “선생님, 오늘은 저희들이 가져 온 CD를 보면 안 될까요?”한다.

학생의 제안에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며 허락했던 게 화근이었다. 학생들이 가져온 영화를 보다가 나는 너무 놀라 보고 있던 영화를 중지시켰던 일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영화는 2000년에 제작 시중에 상영돼 인기(?)를 누렸던 ‘베틀로얄’이라는 일본 영화였다.

이 영화는 ‘심각해지는 학급붕괴와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이런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생존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제작된 영화다. 영화의 줄거리는 ‘신세기교육개혁법(BR법)’이 공표되면서 시작된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중에서 매년 한 학급을 행동범위가 제한된 일반인이 없는 장소에 이동하여 한 사람씩 지도와 일정의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중 한가지씩을 나눠 주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한다는 법률이다.

제한시간 3일 동안, 위법 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를 죽이되,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특수 목걸이가 폭발하여 목숨

을 잃게 된다. 수학여행을 위장하여 무인도에 도착한 학생들은 마치 게임처럼 진행되는 상황에 경악하지만, 생존을 위해 결국 서로의 목숨을 빼앗기 시작해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친구를 모조리 죽여야만 살아남는 살인 게임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근래에는 초·중고생들의 병영체험 캠프가 유행이다. 방학 때만 되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내심을 키워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로 군부대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병영체험 캠프가 성행이다. 지난 7월 19일, 충남 태안 해병대 체험훈련장에 집단 입소한 공주소대부고 학생들 중 다섯 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 후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도 병영체험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병영체험이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행사일까? 병영체험교육이란 ‘애국심 고취’와 ‘건전한 통일·안보관 확립’ 혹은 ‘극기’, ‘체력단련’, ‘리더십 형성’이라

는 명분으로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부모가 함께 만든 행사다. 시행부대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시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훈련이 과연 교육적이거나 건전한 통일관에 도움이 되거나 할까?

병영체험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다. 군복을 입고 약간의 장비를 갖추고 참여하는 이들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이란 어떤 내용일까? 주축하는 군에서는 지금까지 쉽게 접해 보지 못한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며 총검술, 각개전투 등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및 건전한 국가관을 배양을 위한 다면서 천안함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전투기와 소총, 대포와 장갑차 같은 군장비나 살상무기 체험을 시키기도 한다.

어떤 병영체험단체에서는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행군, 낙하산 끌기, 화

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까지 받게 하고 있다. 페인트 총탄이지만 소총으로 사격훈련까지 하는 병영체험도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어린 초등학생이 군복을 입고 군모나 방독면을 쓰고 총검술을 익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초등학생들이 군교관의 지시에 따라 ‘단결’과 ‘애국’을 외치면서 하는 극기 훈련이 정말 교육적일까? 군에서 일반적으로 만든 군 관련 홍보물을 정신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상영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군대에서 혹은 민간단체가 주관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영체험은 ‘사실보도’는 할 수 있어도 비평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군사기밀도 아니면서 언론통제까지 받는 병영체험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진후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병영체험캠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2009~2013학년도) 병

영체험캠프에 참여한 학교는 총 1,375개교로, 참여한 학생 수는 20만 7,4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병영체험캠프에 참여한 학교가 84개교(2009학년도)에서 515개교(2012학년도)로 6.1배(431개교) 증가했고, 참여한 학생은 16,947명(2009학년도)에서 67,129명(2012학년도)로 4배(50,182명)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영체험 캠프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들은 유격훈련, 군장체험, 행군 등과 같이 일반 군인들이 군대에서 받는 훈련을 고스란히 재현해온 것이다.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병영 종합체험학습’과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현장견학’프로그램에는 유격훈련이나 행군, 제식훈련 등이 포함돼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재향군인회의 ‘나라사랑 병영 종합체험 학습’과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현장견학’프로그램을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

을 보내 참가를 권유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 ‘나라사랑 병영 종합체험 학습’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초등학생 3,973명, 중학생 1,629명, 고등학생 874명 등 참여 학생이 무려 6천5백여 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에게 평화교육은 못할망정 군사교육을 시켜 어떤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군사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폭력’을 숭상하는 ‘군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명령을 따르는 복종을 강요하는 군사문화는 합리적 판단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킨다. 군사문화는 군대의 가치와 원리가 병영을 벗어나 민간사회에 침투해 국가주의를 강요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는 배제된 채 집단성과 충성만을 요구하게 된다. 폭력에 순종하는 가치관을 키워 줄 병영체험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심어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 아름다운 마무리

### 11월의 결연 대상자 - 이봉순 어르신

맑고 향기롭게에서 밀반찬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사는 나이가 없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이러저러한 노환으로 한 주먹씩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흔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는 차상위계층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어르신들의 현실은 더욱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현재 420여 가구에 이르는 밀반찬 지원 대상자 중에서 불교신도를 만나는 기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고 불자는 10% 정도 됩니다.

몇 달 간격으로 한 번씩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수화기를 들면 무조건 '스님, 감사합니다'로 인사를 시작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사시는 이봉순(82세) 할머니는 밀반찬 지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시는 불교신도로서 불평하거나 주눅 들어 살기보다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생활하는 진정한 어르신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일제 강점기가 남아 있는 이봉순 할머니는 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이제는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으로 살아가십니다. 많은 밀반찬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러워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이신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매달 20여만 원씩 전


세 보증금을 갚아가야 하기 때문에 폐지를 수집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계가 어렵습니다. 40대 후반의 아드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아드님은 IMF 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어 당뇨와 고혈압이 발병하면서 이빨이 모두 빠지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하고 지금은 '조건부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일을 하지 못해서 생계급여가 일시 지급되지 못했는데, 사정을 잘 아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구청의 지원을 보태어 할머니에게 20만원을 전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서 상경해서 평생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셨던 이봉순

어르신은 37세 때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이후 아들 하나, 딸 하나의 남매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10여 년간 아들의 부양을 받기보다는 몸이 아픈 아들을 간호해야했던 이봉순 어르신은 희망은 여전히 아들의 건강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한참 힘겨웠던 시기, 2002년부터 3년 동안 영광여고에 재학하던 손녀딸에게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을 지급했던 인연이 더욱 소중한데, 그 인연은 지금 매주 한 번씩 맑고 향기롭게 전화말벗 자원봉사자와 통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봉순 할머니는 지난 초파일에도 길상사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연등은 달지 못했지만 작은 보시금을 불전함에 넣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범정스님,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 길상사 신도님들에게 묵언으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 성금 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11월 9일(토)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현관(3층) 입구 (2014년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 캠페인)



## 일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병원 - 카메다 종합병원

글· 변택주

데이비드 린David Lean이 연출한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를 보면 세계 제1차 대전 때 아라비아에 파견된 영국군 로렌스 중위는 파이잘 왕자와 알리 족장 그리고 호웨이랏족 족장 아우다 이부타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들과 힘을 모아 네푸드 사막에서 아카바 터키군을 몰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렌스는 아랍 토호들을 영국으로 초대해 대접한다. 그런데 아랍 토호들이 묵고 떠난 호텔방에서 수도꼭지들이 모두 얼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게다가 한술 더 떠 로렌스는 아랍 토호들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뽑아간 수도꼭지에서 왜 물이 나오지 않느냐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도꼭지가 나오는 구조(mechanism)를 헤

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Always say YES!

‘일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병원’이 있다. 일본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20km나 떨어진 작은 해안도시 지바현(千葉縣) 카모가와시(鴨川市)에 있는 카메다 종합병원. 도쿄역에서 특급전차로 두 시간을 가셔도 택시로 5분이나 더 가야하는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다. 그런데도 카모가와시는 인구가 3만 6천 명뿐인데 카메다 병원은 하루 외래 환자가 많게는 3천 5백 명, 병상만 1천 개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병원 경영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쉽지 않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자라는 데다, 끊임없이 새로 들여놔야 하는 첨단장비, 그리

고 지방병원이 지니고 있는 대생에 따른 환자 감소, 민간병원 보조금 문제처럼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 국공립병원 70퍼센트, 사립병원 40퍼센트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위로는 북해도에서 아래로는 오키나와 지방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까닭이 무엇일까?



선승훈 선병원 의료원장과 존 워커 카메다병원 부원장

카메다병원은 11대째 내려오는 가족 병원으로 3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치시골병원이었을 뿐인데 1991년 존 워커 부원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내래를 펴고 날아오른다. 존 워커 부원장은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대학에서 병원경영을 전공한 뒤 1961년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30년 동안 주일 미군사령부에 근무하면서 해군병원 경영혁신을 이끌었다. 이때 카메다병원과 맺은 인연 고리가 가지런히 이어졌다. 존 워커는 카메다병원 의사 카메다 도시타다, 카메다 다카야키, 카메다 신스케 삼형제와 힘을 모아 병원 개혁을 집도해 십여 년 만에 1천 개 병상에 의사는 450여 명, 간호사는 720여 명으로 튼실하게 자랐다.

존 워커 부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가장 서두른 일이 현대 병원에 기틀이 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 의무기록)을 깔고 통합형병원정보시스템(Clinical Navigation System)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 덕분에 카메다 병원은 의무기록이나 화상정보 표준을 만들어 전자회로에 입력, 지역 개업의나 복지 시설, 행정기관이 의료정보를 공유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닦아 지역의료 컨트롤타워가 되어 검사나 투약이 중복됨을 막고, 의료내용을 서로 감시해, 급성기, 만성기, 재택의료처럼 환자에게 꼭 들어맞는 맞춤형 최적 의료서비스 코디네이터 노릇을 톡톡히 해낸다.

자그마한 해안마을로 마을 전체가 리조트인 카모가와시 해안 리조트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카메다종합병원은 남쪽에 태평양과 맞닿아있고, 북쪽으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또 세계에 널리 알려진 수족관인 카모가와 시월드(Sea World)도 이곳에 있어 천혜 관광지에 세워진 카메다 병원은 겉모습만 언뜻 보아서는 병원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 펜션 스타일로 지어 리조트와 조화를 이룬 병원은 어느 곳에서든지 바다경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트여있는데다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호텔'에 와 있는 듯하다. 병원 안은 천장을 유리로 한 아트리움과 지붕을 기둥으로 받쳐 세운 회랑으로 환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폭넓은 에스컬레이터는 사람들이 천장 태양광선을 쬐며 너털하게 움직이도록 돕는다. 인테리어는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해 뗏목모양 벽걸이, 조개껍데기 문고리처럼 자연친화 소재와 색채를 썼다. 카메다병원은 클리닉과 카메다 간호전문학교, 종합병원, 응급센터, 교육동으

로 메디컬센터를 이루고 있다.

또 원내 레스토랑을 운영해 인원이 넉넉하고 고급스러운데다 입원과 외래를 떼어낸 새로운 의료시설로 일본 민간사립병원에서 으뜸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카메다 메디컬 센터 안에 있는 카메다 클리닉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고른 건축 컨셉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됨'과 'Arts in Hospital' 두 가지이다. 'Arts in Hospital'은 1990년 유네스코에서 이룩한 것으로 병원환경에 예술을 받아들여 '마음 놓고 쉬'와 '사람다운 격조 높은 요양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도 덜도 아닌 '고객만족을 겨냥한 탈바꿈. 존 위키는 병원 컨셉을 'Always say YES!' 곧 '절대로 NO!'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잡았다. 그래서일까? 찾아오는 환자들은 거의 다 앞서 다녀간 환자들이 소개해서 온 환자들이고, 입원환자 가운데 99.4퍼센트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도쿄역에서 병원까지 직행버스가 하루에 16번이나 왕복한다.

## 너를 살려야 내가 살아!

모든 입원실은 치료하기 쉽게 설계되어 아주 넓은 21평방미터나 된다. 환자뿐 아니라 환자를 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편한 소파가 놓여있으며, 환자가 허락을 하기만 하면 면회도

24시간 자유이다. 병원 1층에는 옷이나 잡화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적자를 내는데도 가게를 연다. 까닭은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하고, 윈도우 쇼핑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기환자를 관찰하는 카메다는 24시간 켜져 있는데 흑시라도 먼저 퇴원한 아기엄마가 아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아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든 마음 씀이다.

여성 전용 세면대는 핑크색으로 곱게 단장돼 있으며, 뷰티살롱이 있다. 환자가 면회 오는 손님을 만나기에 앞서



카메다병원 병실

머리 손질은 물론 가벼운 메이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여성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며,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환자들에게는 가발도 빌려준다. 한마디로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는 어둡고 우울한 병원분위기를 다 몰아냈다. 그 뿐 아니다.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바도 있다. 병원에는 술을 마셔선 안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서 나온 역발상.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게 술이 몇 모금 들어가면 외려 몸이 부드러워질 수 있으며, 또 보호자와 면회자, 비번인 의사나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데서 나온 마음결이다. 의사가 허락을 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

실에서 언제든지 룸서비스를 부를 수 있는데 30분 안에 음식을 가져온다. 병원 식단도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 이 모두가 병실에 침대 곁에 있는 태블릿 PC로 이루어진다.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이를 받쳐주는 IT가 어우러져 우렁이론 작품.

한 번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말기 암 환자가 병원을 둘러보자마자 입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영안실에 있다. 흔히 영안실이나 장례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겨 지하에 두기 마련인데 이곳은 가장 전망이 좋은 13층에 마련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병원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그랬다는데.



13층에서 내려다본 풍광

카메다병원은 1985년, 민간병원으로 는 가장 먼저 ‘구명구급센터’가 됐다. 이곳에 사는 구급환자들이 세 시간이나 걸려 지바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다가 죽는 일이 종종 일어나자 내린 결정이다. 구급 헬리콥터를 비롯한 응급시설에 조그만 민간병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개설 허가를 받아냈다. 더구나 설비나 진료체제가 불충분한 민간병원은 허가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까지 바꾸면서 이루어낸 일이다. 게다가 카메다 병원에는 다른 병원에는 없는 ‘커스터머 릴레이션부’라는 조직이 있다. 스물 네 사람으로 이뤄진 이 팀이 하는 일은 지역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적자를 내는 병원이 많은 형편에서 쉽지 않은 판단. 카모가와시는 350여년 역사를 가진 카메다 병원을 가운데 두고 마을이 화살표처럼 뻗어나가며 문화와 상권을 이루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카메다 병원이 문화, 경제,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라고 입을 모은다.

호세 대학 사카모토 교수는 “이 병원이 내놓는 서비스는 병을 치료한다는 병원 ‘기본 가치’뿐이 아니라 고객이 마땅히 기대하는 ‘기대 가치’, 고객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여기는 가치인 ‘소망 가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이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을 주는 ‘예상 밖 가치’까지 주려고 애썼다.”고 카메다병원 운영방침을 정리했다.

“이만한 서비스라면 마땅히 진료비가 비쌀 테고, 비싸니까 마땅히 서비스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억제정책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가 좋더라도 의료비를 많이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천개나 되는 병상이 모두 차고, 고객이 계속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혹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 병원은 다른 병원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 있는데, 의사들이 너나들이 이곳에서 오고 싶어 한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많이 모자란다.

인구 천 명당 임상의 수는 2.1명으로 OECD 30개 나라 가운데 27위, 참고로 한국은 29위이다. 그런데도 큰 도시도 아닌 이곳에 의사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 까닭은 “환자 못지않게 의사와 간호사, 종업원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손님 최고’를 외치느라 바쁜 나머지 구성원, 한술밥 먹는 식구들에게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카메다 병원은 한술밥을 먹는 식구들을 살가이 보듬어 안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간호사 또는 예비의사나 간호사들이 한 번쯤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됐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림꾼이고, 병원이 하는 일은 모두 살림살이다. 살림살이를 짚어보면 살림; 너를 살려야 살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카메다 병원은 살림살이에 담긴 뜻을 꿰뚫어 헤아린 끝에 나온 작품으로 그 이름은 ‘다살림’이다.



## 음악과 함께 하는 가을 -장필순과 윤영배의 목소리

글 • 서정민갑(대중문화 의견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오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늙어야 하고 죽음 쪽으로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틈을 채우려고 가을이면 서둘러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모양입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음악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가을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에 좋은 음악은 날마다 새롭게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온전히 음악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집안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공

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부러 아주 잠깐이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햇살을, 바람을, 비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음악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음악 속으로 잠기고 음악이 내 속으로 잠기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좋은 음악은 너무 너무 많지만 이왕이면 새로운 음악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올 가을께 나온 음악들 가운데 두 장의 음반을 골라봅니다. 바로 장필순과 윤영배의 음반입니다. 먼저 장

필순의 음반 [Soony Seven]을 먼저 들어봅니다. 장필순은 아시다시피 활동을 시작한지 30여년이나 되었습니다. 1989년에 첫 솔로 앨범을 내놓은 장필순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음악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스키하고 도시적인 장필순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뛰어난 코러스로 이름을 날렸지만 솔로 뮤지션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에 다섯 번째 앨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를 내놓았는데 이 앨범이 그 이전까지의 장필순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보컬리스트로서의 장필순만이 아니라 서정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세련된 포크 록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 장필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아이돌 그룹이 대세가 된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장필순의 음반은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반은 대중음악평론가들이 뽑은 1990년대 국내 음반 가운데 1위로 손꼽힐만큼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귀 밝은 이들

에서 계속 다시 올려피졌습니다. 그 후 2002년에 나온 장필순의 여섯 번째 앨범 역시 대중음악평론가들이 뽑은 2000년대 국내 음반 가운데 1위로 뽑혔습니다. 한 가수가 만든 2장의 음반이 모두 1위로 뽑히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장필순은 그 후 한 장의 가스펠 음반을 더 내놓은 뒤 올해 8월 말 자신의 일곱 번째 음반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을 바로 그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서 장필순은 그녀가 지금까지 들려주었던 음악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포크 록 음악에 일렉트로닉한 색깔이 가미된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음악은 서정적이고 편안하면서도 매우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가을 장필순의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녀의 음악이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록곡마다 편차가 있지만 장필순의 노래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가 있고, 우리의 내면을 섬세하게 감싸는 따뜻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필순이 노래를 잘 하고 연주자들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들이 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필순은 따뜻함과 고요함, 고독함이라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를 담은 가사와 멜로디의 곡을 나지막하게, 또 굳건하게 부르면서 음악으로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눈부신 세상〉과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그가 숨 텅 비울 수 있기를〉, 〈멤멤〉, 〈난 항상 혼자 있어요〉 같은 곡을 들으면 바로 그 곡만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음악은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 안이든 어디든 그냥 음악을 틀어두고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머물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이 머물렀다 간 뒤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옛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스프르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시간이 주는 감흥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그래야만 하는 계절입니다.

장필순의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다면 윤영배의 음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실 윤영배는 이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윤영배 역시 음악을 한지 20여년에 이르는 중견 뮤지션입니다. 199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 대학 후배였던 이한철과 함께 나가 상을 받으며 음악 활동을 시작한 윤영배는 장필순 5집에 〈스파이더 맨〉,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같은 명곡을 실은데 이어, 장필순 6집에도 〈헬리콥터〉, 〈동창〉 같은 명곡들을 실으며 뛰어난 창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도 자신의 앨범을 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는 2010년 11월야야이

발사라는 자신의 앨범을 내놓았습니다. 장필순처럼 어쿠스틱한 포크 음악을 하는 그는 매우 내밀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며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012년에는 [좁 옷긴이라는 제목의 음반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장필순과 비슷한 시기에 새 앨범 [위험한 세계를 내놓았습니다.

윤영배는 [위험한 세계]에서 장필순의 음악이나 자신의 과거 음악과는 다르게 현재의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래 제목부터 〈자본주의〉, 〈선언〉, 〈점거〉, 〈위험한 세계〉, 〈구속〉 같은 센 느낌을 주는 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윤영배의 노래는 과거의 민중가요처럼 세거나 투박하지 않습니다. 음악적인 길감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어쿠스틱 음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음악 안에 현실의 문제를 대거 끌고 들어와 노래로 표현하는 그는 흔히 참여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노래하면서도 자신이 해왔던 음악 스타

일로 표현함으로써 윤영배만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후렴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선명한 노래는 아니어서 귀에 쪽쪽 들어오지는 않지만 귀 기울여 듣다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섬세한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의 선명함만큼이나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만족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서도 되새기게 되는 음악입니다. 비참한 현실, 안타까운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좋은 음악은 계속 나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예술이 살아있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이겠지요. 한 편으로 위로가 되고, 한 편으로 희망이 되는 음악과 함께 이 가을 더욱 깊어지시길, 더욱 맹렬하게 살아 있으시길…….

# 동반자

글 • 맑은 만남(淸逢)



만일 고대가 지워지고 생살하고 여절 바르  
정명한 동반자를 만났다면, 어떤 여정으로 아저나니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리

안녕하세요?

2013년에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한00입니다.

길상사에 가서 장학생들과 만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편지가 아니면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길상사에 자주 찾아 뵈 생각이예요. 저 말고 다른 장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인자한 미소의 스님을 다시 뵈고 싶거든요.

자주 연락하라고 해주셨던 거 기억

하고 있는데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수능이 끝나면 반드시 한번은 직접 찾아뵈게요.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날 장학증서와 같이 주셨던 법정 스님의 책, 소중히 읽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 책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 때 읽으면 차분해져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입시 준비하는데 길상사를 떠올리면 힘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그날 절에서 맡았던 향내가 독특해서 조만간에 맡으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맑고 향기롭게 페이스북 개설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모임의 활동 이야기와 좋은 글을 일상 속에서 여러 회원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 '페이스북'을 개설하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맑고 향기롭게'를 만나보세요.

· <https://www.facebook.com/clean94.or.kr>



### 중앙모임 (02-741-4696~7)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월곡청소년센터를 위탁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는 서울 월곡동 재개발단지의 오르막에 있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문화,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설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 예능,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성북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방과후교실 아동들의 식사와 반찬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비용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빠른 운영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동들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에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라 당연히 지원이 잘되는 곳으로 인식되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는 맑고 향기롭게와 푸드뱅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맑고 향기롭게는 밀반찬과 김치를 오래전부터 지원해 왔으며, 2011년부터 위탁운영지원단체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곡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한 달에 1,500여명, 방과후교실 아동수는 50명 정도로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 중심입니다. 방학이 되어도 부모님과 함께 멋진 여행을 계획하기보다는 점심식사와 집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는지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방과후 교실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으로 위안삼아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잊지 못할 경험과 감동은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아 힘들고 지칠 때 입가에 미소를 띠울 수 있는 활력소를 주는 충전제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간직한 추억이 많을수록 더 여유롭고 사랑이 가득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여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 2013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참가자 접수중

- 일정 : 11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 17일 (일) 오전 10시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참가비 : 수도권(서울, 경기) 20,000원, 비수도권 1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사)맑고 향기롭게
- 참가 조건 : 후원 회원, 정기 자원봉사자 및 가족
-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양말, 따뜻한 옷, 간편한 티셔츠, 개인물병(어겁), 운동화나 단화, 필기도구
- 접수 : 전화, 방문, 봉사팀별 선착순 접수
- 참가자 전원 법정스님 저서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진인선원 나눔 행사를 11월 10일 진행합니다.

진인선원 봉사팀은 시설 어르신을 모시고 국악과 레크리에이션, 풍물공연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생활관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자의 따스한 손길을 통하여 오감을 자극하여 정신적 힐링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늘 참여하는 정기봉사자와 더불어 민요 전수자 공연을 통하여 다가오는 겨울에 생활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 모회원 나눔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모회원 봉사팀은 지난 10월 20일 모회원, 불이원, 상락원 시설 어르신과 장애인 200여명을 모시고 음식 공양을 대접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의 기회가 드문 분들을 시설 정원으로 모셔서 말벗과 점심식사를 도와 드렸습니다. 그동안 농사일손등 노력봉사만 주로 해오던 봉사팀이 어르신과 모처럼 마주하면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자원활동 안내

#####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봉사 활동>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가지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눠주시는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 <노인요양원(진인요양원, 모회원) 봉사 활동>

진인요양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모회



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주세요야 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봉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서 매일 2,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고,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또한 배식 관련 활동상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며 미소지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서야 합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닌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시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후원내역 -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현재 중앙모임 후원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나의 후원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해야 가능하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세청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 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식 우편발송/ 1일(금), 오전 10시~12시/ 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11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 11월 17일(일) 오전 10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아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목요일(7,14,21,28일)/금요일(1,15,22,29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4,11,18,25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0,17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회원(차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3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목요일(21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11월 9일(토)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현관(3층) 입구 (2014년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 캠페인)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6,13,20,27일(수)오후 1시 30분 (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광주모임 (062-236-3129)

〈공양 나눔 요일별 봉사팀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요일별 자원봉사 팀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봉사자의 날을 정함으로 요일별 봉사자와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부득이 봉사자가 결석하는 날은 팀장이 대체인원을 확보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지만은 뜻에 모았습니다. 특히 광주모임이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주순영님은 회원 간에 화합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살다 보니 봉사라는 말보다는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회원간에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금지위원장은 은 하나 된 힘을 모아 팀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란 믿음과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봉사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10월 16일, 광주모임 창립 이래 봉사자의 날을 가졌습니다. 인연이 다해 떠난 분들도 있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남아서 지금껏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에 17년이란 세월동안 한결같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수요봉사팀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 공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으나 함께 한다는 마음만으로도 행복한 미소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10월 독서모임은 법정성님의 저서 '무소유 - 흠과 평면 공간'을 읽고 잘 사는 것은 편리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11월 정기 활동 안내

- '공양 나눔 센터'에서 동참해 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30분에서 오후2시까지 진행되는 활동에 선행을 베풀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 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부터 광주모임에서는 금강경 독송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평생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독송하고 알아가는 금강경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광주모임으로 문의해주세요.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대구모임 (053-753-8883)

#### 11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일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바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참가자 모집〉

- 동참하실 경남모임 회원은 사무국으로 10월 30일(수)까지 신청하세요.
- 일정 : 11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 참가비 : 10,000 - 비수도권
- \* 경남모임은 11월 16일(토) 오전 7시 30분 출발 예정입니다.

####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만들기 일정 변경 안내〉

10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1시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천연재료와 아로마향 가득한 분위기에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몸에 좋은 녹차도 상큼한 레몬도 그윽한 장미도 피부에 양보하며 내일의 지구사랑을 실천하며 천연화장품으로 바꿔보세요.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0월 회원 만남의 날을 10월 7일(월) 12시 한정식 '논두렁밭두렁'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무료급식소 '자비공양의 집', 무료노인요양원 '보현행원' 자원활동가팀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의 안부와 활동 이야기를 나누며 웰빙음식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운영위원회는 10월 14일(월) 저녁 7시 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마복순 본부장님, 하해성 운영위원장님, 강호연, 백운길, 신대철, 이근조, 이양재 운영위원님이 참석하였으며, 업무보고와 10월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11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 준비 등
- 저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회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엘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 1시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11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 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 급식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우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다라니기도

- 일시 : 11월2일 (오후7시~9시)
- 장소 : 극락전

- 회향 : 11월7일(목)
- 시간 : 오전8시~오후5시40분

####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11월9일 (오후9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 추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1월16일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1월9일 (오후8시30분~다음날오전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공덕주 길상화보살 기일 안내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주상보시를 한 공덕주 길상화보살님의 기재가 봉행됩니다.
- 일시 : 11월9일(토)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

#### 11월 주말 선 수련회

-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 : 16일(토)~17일(일)
- 일반인 수련회 : 23일(토)~24일(일)/참가비 :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 동안거결제법회 및 90일 관음기도 입재

- 고요한 정진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밝혀가는 90일의 시간, 동안거 결제법회 및 관음기도가 봉행됩니다.
- 일시 : 11월17일(일)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

#### 대입수능 100일기도 회향

2014년도 수험생 자녀들의 원만합격을 기원하는 대입수능100일기도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노력과 부모님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학업성취와 더불어 가정 내외의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길 발원합니다.

#### 길상사 김장 함께 담궐요.

- 겨울 동안 수많은 대중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에 신도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길상사 김장 담그는 날 : 11월 29일(금)~30일(토) / 공양간

## 스리랑카 성지순례 안내

나라 곳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교유적지로서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 이곳으로 해외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길상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초하루법회	12월 3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2월 7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2월 14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12월 14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16주년 개산법회	12월 15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20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2월26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4시/오전9시50분/저녁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4시/오전9시50분/저녁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2013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 참가자 모집

11월 16일(토) ~ 11월 17일(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가장 으뜸인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활동으로 회원님과 자원봉사자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회원 만남의 날 행사로 준비하는 이번 수련회에 회원님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입재 : 11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 회향 : 11월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참가비 : 수도권(서울, 경기) 20,000원, 비수도권 10,000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301-22-00270-1
- 참여 대상 : 후원 회원, 자원봉사자 및 초5학년 이상의 가족
-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양말, 따뜻한 옷, 간편한 티셔츠, 개인 물병 또는 컵, 운동화나 단화, 필기도구
- 전화 접수 시 성명, 성별, 연령, 회원유무, 연락처, 수련복 크기 등을 알려주세요.
- 참가자 전원 법정스님 저서 1권 증정
- 접수 : 전화, 방문, 봉사팀별 선착순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중앙 사무국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및 길상사 창건 16주년 기념 음악회 안내

오늘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정겨운 송년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명, 평화, 나눔이란 주제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 일정 : 12월 15일(일) 셋째 일요일 / 오후 2시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자원봉사자가 있기에  
우리 사는 세상이 맑고 향기롭습니다.

## 2013년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누기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나누려 합니다.

1999년 겨울 100포기의 김장을 담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이후로 매년 김장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0여 포기의 김장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마주 잡고 맑고 향기로운 나눔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일정: 12월 4일(수) - 천막 설치, 재료 및 양념 준비  
12월 5일(목) - 배추 속 넣기, 김장통 옮기기, 천막 정리
- ※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 ※ 준비물: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 장소: 길상사 주차장 옆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 김장 후원: 국민은행 817-01-0255-458
- ※ 활동 혜택: 소정의 기념품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 주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 ※ 협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 ※ 접수·문의: 중앙사무국 02)741-4696

자원봉사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